

영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에 대한 억양 연구*

A Study on Intonation of the Topic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이 용 재** · 김 화 영***
Yong-Jae Lee · Hwa-Young Kim

ABSTRACT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intonation. Argument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intonation researched so fa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tonation of topic and focus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is represented as i) a pitch accent, ii) a tune (a pitch accent + an edge tone), or iii) a boundary ton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various intonational patterns of the topic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using real TV discussion data. In this paper, the topic is classified as contrastive topics and non-contrastive topics, based on contrastivenes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onation of the topic in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is implemented as a pitch accent, neither a tune nor a boundary tone. Of the non-contrastive topics, while anaphoric determinative NP topics(Lnc, Lncd) are mainly represented as a H* pitch accent, the pronoun topic(Lp) does not have a pitch accent. Of contrastive topics, while the semantically focused topic(Lci) is mainly represented as a H* pitch accent, the contrastively focused topic(Lcc) is represented as both H* and L+H* pitch accents. It shows that it is not always true that the topic or focus to have the meaning of contrast is represented as a L+H* pitch accent as argu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Keywords: topic, focus, link, information structure, intonation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장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이루는 화제(topic)에 상응하는 명사구(NP)의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구조란 화자(글 쓴 이)가 청자(읽는 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

* 이 논문은 2005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의 지식저장소에 덧붙이고자 선택하는 문장 구조로,¹⁾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보구조가 화제-논평(topic-comment)(Hockett, 1958; Gundel, 1988), 바탕-초점(ground-focus)(Vallduví, 1992; Vallduví & Engdahl, 1996) 전제-초점(presupposition-focus) (Jackendoff, 1972), 주제-논술(theme-rheme) (Halliday, 1967b, 1970; Steedman, 1991, 2000)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되어 온 정보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정보구조는 언어에 따라 형태소나 운율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구분된다. 한국어와 일본어 같은 언어는 형태소에 의해 정보 단위의 구분이 가능한 언어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의 화제는 '코끼리는'이 되고, 이때 조사 '-는'이 화제를 표시해주는 형태소로써 기능한다. 반면에, 영어는 정보구조가 억양으로 구분되는 언어이다. Halliday(1967a)가 영어에서 억양과 정보구조와의 관계를 논한 이후로 Jackendoff(1972), Pierrehumbert(1980), Bolinger(1986), Steedman(1991, 2000), Vallduví & Engdahl(1996), Lambrecht & Michaelis(1998), Gundel(1999), Gundel & Fretheim(2004) 등이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정보구조를 이루는 정보 단위로서의 화제와 초점이 억양으로 구현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이루나, 각 정보 단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억양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설명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 단위들이 H*, L*와 같은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Jackendoff, 1972; Bolinger, 1986; Vallduví & Engdahl, 1996; Gundel, 1999; Gundel & Fretheim, 2004). 이들은 화제가 L+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고 초점은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정보단위가 H*L-L%와 같이 하나의 음조(tune)로 구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Pierrehumbert, 1980; Steedman, 1991, 2000). 정보구조로 구현되는 음조의 형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화제는 L+H* L-H%(L%)로, 초점은 H*L-L%(H%)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정보단위가 H%, L%와 같은 경계성조로 구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Lambrecht & Michaelis, 1998). Lambrecht & Michaelis(1998)는 화제와 초점 사이에 어떠한 운율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들 논문의 각주를 통해 H%가 화제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L%가 초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모두 제한된 실험실 상황에서의 연구이거나 혹은 실험이 없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쳤다. 또한 이들의 화제에 대한 억양 연구는 주로 대조화제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반적인 화제의 분류를 통한 억양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Hedberg & Sosa(2001, 2002), Hedberg, Sosa, & Fadden(2004, 2006), Hedberg(2002a, 2002b)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연발화 상에서 자료를 취해 정보구조와 문장 유형에 따른 억양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Hedberg & Sosa(2001)는 PBS TV 정치토론 프로그램인 The McLaughlin Group을 자료로 삼아 최초로 정보 단위로서 화제와 초점 분류에 따른 억양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억양과 정보구조 범주 사이에는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직접적인 1:1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액센트가 없는 경향이 있는 승인화제(ratified topic)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구조 범주가 H*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1) 박철우(2003:13) 인용

Hedberg & Sosa(2001)의 연구가 실제 토론 자료를 이용하여 억양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지만, 김화영(2005)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수의 부족(분석 자료수: 210개), 보다 세분화된 화제와 초점 분류의 필요성, 대조성 구분의 모호함, 억양 표기의 문제점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단위의 속성을 보다 세분화하고 대조성과 비대조성을 구분하여 ToBI에 근거한 억양 표기로 정보구조의 억양을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Hedberg & Sosa(2001)의 정보구조 및 억양 분석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세분화된 정보구조의 억양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제까지 연구되어 온 정보구조의 범주에 따른 억양 유형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실제 발화 자료의 억양을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정보구조를 이루는 화제와 초점 가운데 화제의 억양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화제와 초점을 모두 살펴보는 작업은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두 정보 단위가 억양과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화제의 억양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2 장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화제의 개념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화제에 대한 개념과 화제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2. 화제의 분류

2.1 연구 대상으로서의 화제

정보구조를 이루는 화제의 억양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제’가 무엇인지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Vallduví & Engdahl(1996)이 제안한 연결부(link)-초점(focus)-꼬리(tail) 구조 가운데 ‘연결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억양 형태를 살펴볼 것인데, 그 이유는 연결부가 기존의 화제(주제, 전제, 바탕에 상응)라 명명되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며, 명사구에 한정하여 화제 억양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입장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화제의 개념에 대해 Vallduví(1992)와 Vallduví & Engdahl(1996)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Vallduví(1992)와 Vallduví & Engdahl(1996)은 Chafe(1976)의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²⁾ 개념을 이용하여 문장을 바탕-초점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바탕-초점의 개념을 화제-논평의 개념

2) ‘정보포장’이라는 용어는 정보 흐름의 유형을 의사소통과 인지의 측면에서 논의한 Chafe(197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의사소통이란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가 청자의 의식 상태를 탐지하고 그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포장’ 장치가 있다고 논하였다. 이후 Vallduví & Engdahl(1996:460)은 정보포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보포장이란 특정 맥락이나 담화의 의사소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사적, 운율적, 형태적 수단으로 문장을 구조화하는 것이며, 이렇게 언어적 수단으로 전달된 정보가 맥락이나 담화에 얼마나 적절한지를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포장의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억양구조’, ‘통사구조’와 같이 화제와 초점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맥락에서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논의 기술에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 비교하며 어떤 정보구조도 그 자체로는 문장 내 존재하는 모든 정보적 구분을 포착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항 구조가 갖는 분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Vallduví(199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삼항 계층 분절을 주장하였다.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삼항 계층 분절에서 문장은 초점과 바탕으로 나누어지는데, 바탕은 또한 연결부와 꼬리로 구성된다.

- (1) S = { focus, ground }
 ground = { link, tail }

여기서 초점이란, 문장 발화시 청자의 정보 상태에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여로 갱신잠재력(update potential)을 의미한다. 바탕은 입력 정보 상태에 이미 채워지고 초점을 위한 길잡이로 행동한다. 즉, 바탕은 어떻게 정보 갱신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시한다. 문장들은 문맥이 허용할 때에만 바탕을 가지므로 바탕은 그런 길 안내가 필요할 때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 바탕은 연결부와 꼬리로 더 나뉘어진다. 연결부와 꼬리는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바탕의 길 안내 역할에 기여한다. 연결부는 입력 정보 상태에서 초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시한다. 꼬리는 초점이 어떻게 위치 내에 알맞게 끼워 넣어지는지를 지시한다. 즉, 꼬리의 존재는 담화에서의 그 지점에서 갱신의 비지정적 양식(nondefault mode)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 (2)는 정보구조의 삼항 계층 분절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장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보여주는 예이다.

- (2) a.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o?
 [g_L John] [f drinks BEER].
 b.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rink?
 [g_L John] drinks [f BEER].

(2a)의 대답은 John을 갱신의 위치로 지정하는 자료 카드로 사용하고 거기에 drinks beer라는 속성을 가진 조건을 추가하라는 것이다. (2b)의 대답은 청자로 하여금 John을 지시하는 자료 카드에 대해 'drinks _____' 형식에 대한 조건을 찾아보고 명시되지 않은 서술어를 beer로 대치하라는 지시를 한다.

본 연구에서 화제는 명사구(NP)에 한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Vallduví and Engdahl(1996)의 연결부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3)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앞서 언급된 The president에 대해 대명사 He로 받은 것은 연결부로 보지 않고 있다.

- (3) The president has a weakness.
 [f He hates CHOCOLATE].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명사 역시 연결부에 포함시켜 억양 분석을 시도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화제에 대한 Lambrecht and Michaelis(1998) 연구에서 대명사는 승인화제로 분류된다는 점에 미루어 화제로서 기능할 때 어떠한 억양으로 구현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부라는

용어 대신 ‘화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데, 왜냐하면 ‘연결부’에서는 다루지 않는 대명사 역시 함께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연결부’만을 연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화제’라는 용어가 보다 폭넓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2.2 화제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Hedberg & Sosa(2001)에서 다루지 않은 화제가 갖는 대조성과 비대조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담화맥락 내에서 화제를 분류하였다. 먼저, 2.2.1에서 화제를 대조성 유무로 구분하게 된 배경과 Lee(2002)의 대조성 유무를 살펴보고, 2.2.2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화제의 분류를 살펴보겠다.

2.2.1 대조성에 따른 화제 분류

의미·화용론 분야에서 화제 명사구는 보통 대조성을 갖는다. 다음 Büring(2002)의 예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Fred가 대조화제로 표시되고 있다. Fred가 대조화제인 이유는 Who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집합, 예를 들어, Who의 대조집합={Tom, Maria, Fred, William, etc.}에서 다른 후보자(Tom, Maria, William, etc.)가 아닌 바로 Fred가 먹었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에서 []_{CT}는 대조화제를 나타낸다.

(4) Q: Who ate what? A: [[FRED]_{CT}] ate the BEANS_F.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발화되는 모든 화제는 대조화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화제가 대조화제인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대조화제와 대조화제가 아닌 화제를 구분하는 것 또한 명백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Lee(2002)의 대조성과 비대조성에 대한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화제를 분류하였다.

Lee(2002)는 개인 수준의 술어, 총칭명사구,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의 세 가지를 비대조적인 요소로 보았다. 개인 수준의 술어란, Sam is intelligent에서 술어인 intelligent가 화제 Sam의 개인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 대조성을 띄지 않는다. 총칭명사구 역시 Dogs are faithful animals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칭명사 Dogs를 비대조화제로 본다. 마지막으로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란, 다음 (5)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질문에서 사용된 명사구가 대담으로 대명사의 형태가 아니라 명사구 형태 그대로 사용될 때를 말한다.

(5) Q: What is Sam doing?

A: Sam is running.

(5)에서 이미 질문에 Sam이라는 정보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에서 Sam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라 한다.

Lee(2002)가 분류한 비대조적인 성향의 명사구를 제외한 이외의 나머지 명사구에 대해서는 대조성을 띤다고 볼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대조화제를 의미초점을 받는 화제와 대조초점을 받는 화

제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Gundel(1999)의 초점에 대한 세 분류에 의거한 것이다. Gundel은 초점을 심리초점, 의미초점, 대조초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³⁾ Gundel은 ‘초점’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정보’와 ‘대조’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논의되어왔다고 보고, 이를 각각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이라고 분류하였다. Gundel은 의미초점을 표면적으로든 함축적으로든 주로 의문사의문문에 대한 답이 되는 문장의 일부로 보았고,⁴⁾ 대조초점은 관련 ‘대조집합’의 다른 잠재적인 후보자들과 대조를 이루도록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주어진 구성성분에 부과하는 현저함이라 보았다. Gundel은 기본적으로 의미초점도 대조초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 둘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리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대조초점을 받는 성분은 문장 내 동일 위치를 점유할 수도 있었던 다른 요소와 대조됨이 강조되는 것이고, 의미초점을 받는 성분은 화제에 관해 서술되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2.2.2 연구에 사용된 화제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2.2.1 절에서 구분한 대조성과 비대조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화제를 분류하였다. 비대조적 화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Lee(2002)의 비대조성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된 내용을 대명사로 받는 유형(Lp)과,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로 받는 유형(Lnc), 총칭명사인 경우(Lncg)로 나누었다. 또한 다음 (6)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담화핵락 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담화지시적·대용적 한정사구(명사구)로 받는 경우(Lncd)를 구분하였다.

(6) **Rev. Wallis:** ...And that we can't do. The Catholic bishops get it right, this consistent ethical right. Capital punishment...

Dr. Falwell: That means John Paul II has it wrong, right?

Rev. Wallis: Well, the pope was against the war in Iraq.(Nov. 28, 2004)

(6)에서 Rev. Wallis는 Dr. Falwell이 언급한 John Paul II를 그와 동일한 지칭을 의미하는 the pope로 받고 있다. 이 때 the pope가 바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한정사구가 된다.

비대조적 화제의 나머지 한 유형은 대화 상황에서 대명사로 표현되나 이전에 명시되지 않고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제 유형(Lps)을 구분하였다.

대조적 화제는 Gundel(1999)의 의미초점과 대조초점을 받는 화제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답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집합 내의 한 후보자로 선택되어 표면적이거나 암시적인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경우(Lci)와 표면적으로 분명한 대조의 의미를 주기 위한 경우(Lcc)가 그것이다. 다음 (7)은 Lci 화제 유형의 예를 보여준다.

3) Gundel(1999)의 세 가지 초점 가운데 심리초점은 초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제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4) Gundel(1999)은 의미초점에 대한 개념 정의로서 Cutler and Fodor(1979)의 ‘의미초점’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7) **Mr. Russert:** David Broder, before we go, 2005, what should our viewers be looking for, what issues, what stories?

Mr. Broder: Well, the best news is baseball in Washington, of course,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ward...(Jan. 2, 2005)

(7)에서 Mr. Russert의 '2005년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Mr. Broder는 여러 뉴스 중 the best news에 관해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the best news는 Lci 유형의 화제로 분류되었다.

다음 (8)은 Lcc 유형의 예를 보여준다.

(8) **Mr. Russert:** Who do you like?

Mr. Safire: I think the Democrats will nominate Evan Bayh and Bill Richardson and the Republicans will nominate John McCain and Condi Rice. (Jan. 2, 2005)

(8)에서 Mr. Safire는 민주당원(the Democrats)과 공화당원(the Republicans)의 극명한 대조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Lcc 유형 대조화제로 분류되었다.

대조적 화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9)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나열형 대조화제(Lcl) 역시 나누었는데 이는 다음 3장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억양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9) **Mr. Kean:** I am for two reasons. One is Sensenbrenner also said that he didn't succumb to pressure and the president knew that, so he wouldn't try that tactic. But the other thing is that, you know, there's one thing about this president: and I know ... (Nov. 28, 2004)

(9)에서 Mr. Kean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One, the other thing과 같이 나열형 명사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제 분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대조적화제>

Lp: 앞서 언급한 내용을 대명사로 받을 때

Lps: 대화 상황에서 대명사로 표현되나 이전에 명시되지 않고 상황을 통해 알 때

Lnc: 담화지시적·대응적 한정사구로 받을 때

Lncd: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형태의 담화지시적·대응적 한정사구로 받을 때

Lncg: 총칭명사구

<대조적화제>

Lci: 의미초점을 받는 화제

Lcc: 대조초점을 받는 화제

Lcl: 나열형 화제

본 자료의 화제 분석 대상 문장은 억양 유형의 일관성을 위해 긍정 평서문에 한하였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경우 다른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후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3. 화제 억양 분석

2장에서 살펴본 화제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이번 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화제 분류에 따른 화제 명사구의 억양 양상을 분석한다.

3.1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

억양분석을 위한 자료로써 현재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TV 토론 프로그램인 *Meet The Press*를 이용하였다. *Meet The Press*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씩 방영되는 NBC 방송사의 시사, 정치 토론 프로그램으로 매주 각 언론매체의 기자들과 유명 정치인들이 출연하여 시사문제를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정해진 대본이 없고 진행자의 중재를 통해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토론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자연발화에 대한 자료로 채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4년 11월 28일(Data 1), 2005년 1월 2일(Data 2), 2005년 1월 9일(Data 3)에 방영된 세 개 분량의 방송을 비디오 녹화하였다. 이들은 각각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를 제외하고 한 회당 48분씩 분량으로 나뉘어졌다. 그리하여 48분 * 3회분 = 총 144분 분량을 음성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은 각각의 세 자료 내에서 분류된 화제가 나타난 개수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1. 각 자료별 유형에 따른 화제 명사구의 발화 개수 및 비율

	Lp	Lps	Lnc	Lncd	Lncg	Lcl	Lci	Lcc	합계
Data 1	158	0	49	4	0	2	17	19	249
Data 2	190	1	26	4	1	0	24	8	254
Data 3	178	1	16	10	1	0	16	25	247
합계	526	2	91	18	2	2	57	52	750
비율(%)	70.13	0.267	12.13	2.4	0.267	0.267	7.6	6.933	100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억양 분석에 사용된 항목의 개수는 총 750개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으로 분류된 화제 가운데 Lps, Lncg, Lcl의 경우는 전체 750개 중 1%에도 못미치기 때문에(6개) 이 세 분류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실제 억양 분석된

자료 수는 총 744 개이다.⁵⁾

음성 분석을 위해 녹화된 자료들은 Cool Edit Pro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채취율 44,100 Hz, 16 bit Mono sound로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억양 분석을 위해 피치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PitchWorks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억양 분석에 대한 표기는 억양음운론에 근거한 ToBI 레이블링 관습을 따랐다. 분석된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 검증을 위해서는 SPSS 윈도우 version 14.0을 이용하였다.

3.2 화제 억양 분석 결과

위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ps, Lncg, Lcl의 경우는 너무 적은 자료 수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절은 그 외의 비대조화제로서 Lp, Lnc, Lncd와 대조화제로서 Lci와 Lcc를 분석한 결과이다.

3.2.1 비대조화제의 억양 분석 결과

3.2.1.1 Lp 분석 결과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화제가 대명사로 구현되는 비율은 전체 화제의 70.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이러한 Lp 유형 화제의 억양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⁶⁾

표 2. Lp 화제 유형의 억양 구현 양상 및 비율

억양유형 자료	X	H*	L+H*	%H	H**L	!H-L%	!H*	!H*L-L%	H*H-L%	L-
Data 1	121	18	5	11	0	1	1	1	0	0
Data 2	150	20	6	12	0	0	0	0	1	1
Data 3	151	5	16	4	1	0	0	0	0	0
합계	422	43	27	27	1	1	1	1	1	1
비율(%)	80.38	8.19	5.14	5.14	0.19	0.19	0.19	0.19	0.19	0.19

5)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대본(transcripts)은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었다. 대본은 방송이 끝나면 바로 웹사이트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나 오류가 있었는데, 그러한 오류들은 모두 직접 녹음하고 들으면서 수정하였다.

6) <표 2>에 사용된 억양은 ToBI에 근거하여 분석된 것이다. ToBI에서 피치액센트는 H*, L*, L+H*, L**H, H+!H*의 다섯 개로 구분된다. <표 2>에서 !H*, H**L는 ToBI에 없는 피치액센트 형태이다. 그러나, 실제 발화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H*는 화제로 분류된 명사구 앞에 이미 H나 H*가 있을 경우에 표시된 것으로 ToBI 표시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H**L는 ToBI 이전의 억양음운론에서 사용했던 표기로 이후 ToBI에서는 H*로 통합되어 표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H**L 유형을 H*와 구분한 이유는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를 논할 때 미세한 억양 차이에도 의미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억양 분석 단계에서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H**L 유형의 적은 자료수와 그로 인한 억양과 의미와의 관계 분석의 무의미성으로 인해 이후 화제 유형 억양 분석에서 이를 'H* 유형'의 억양으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p의 주요 억양 유형은 비강세(X)(80.38%) > H*(8.19%) > L+H*, %H (5.14)의 순으로 나타난다. 억양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비강세 억양이 Lp 화제 유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억양형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χ^2 goodness-of-fit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3>은 Lp 억양 유형의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를 보여준다.7)

표 3. Lp 억양 유형에 관한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카이제곱	2930.181*
자유도	9
유의도	.000*

* $p < .05$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p 화제 유형의 억양 형태들은 유의수준 0.05에서 몹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0^*$). 즉, 표 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 강세 없는 유형(X, 80% 이상)이 Lp 유형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화제 Lp는 주로 강세 없이 구현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Lp 화제가 강세 없이 구현된 경우를 보여주고, <그림 2>는 H*로 구현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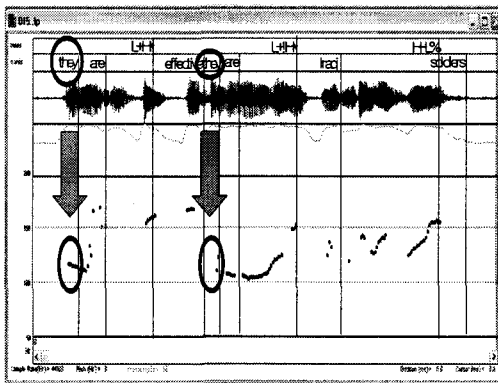


그림 1. Lp 화제 유형이 강세가 없는 경우
(Jan. 9, 2005)

... these are effective soldiers, *they* are effective, *they* are Iraqi sold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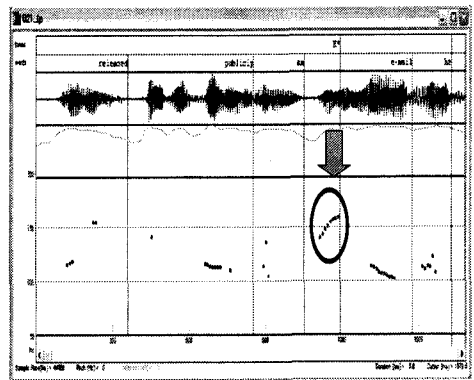


그림 2. Lp 화제 유형에서 H*로 구현된 경우(Nov. 28, 2004)

And he uhh...released publicly an *e-mail*...

7)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 준다. 따라서 본 논문의 통계 결과표에서 p -값이 .000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소수점 넷째 이하의 자리에서 반올림된 것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고려했을 때 몹시 유의미한 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2.1.2 Lnc와 Lncd 분석 결과

비대조적 화제 유형 가운데 앞서 언급한 내용을 명사구의 형태로 받는 화제 유형인 Lnc와 Lncd가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아니면 음조로 구현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Lnc와 Lncd 화제 유형의 억양 양상

화제 유형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Lnc	피치액센트	40	19	16	75	82.42
	음조	9	7	0	16	17.58
	합계	49	26	16	91	100
Lncd	피치액센트	3	4	7	14	77.78
	음조	3	0	3	4	22.22
	합계	6	4	10	18	100

<표 4>에 의하면, Lnc와 Lncd 두 화제 유형 모두 피치액센트로 발화한 경우(82.42%, 77.78%)가 피치액센트와 경계성조를 포함한 음조로 발화한 경우(17.58%, 22.22%)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Lnc 유형은 H*, H*+L, H* !H*, H* !H* H*, !H* !H*, !H*, H* H+!H*, L*, L+H*, L+H* !H*, L+H* L+!H*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피치액센트로 구현되었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H*+L, H* !H*, H* !H* H*, !H* !H*, !H*, H* H+!H* 억양 유형은 모두 H*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L+H*, L+H* !H*, L+H* L+!H* 억양 유형은 모두 L+H*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결국 이들은 H*와 L+H*의 두 유형의 피치액센트로 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표 5>는 Lnc 유형의 억양 형태를 H*와 L+H* 유형으로 통합한 것의 개수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5. Lnc 유형의 피치액센트 구현 비율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H* 유형	38	19	12	69	75.82
L+H* 유형	8	6	3	17	18.68
기타 유형	3	1	1	5	5.49

<표 5>에서는 Lnc 화제가 L+H*나 다른 유형에 비해 H*로 주로 발화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75.82%). 세 억양 유형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 여부와 가장 선호되는 억양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Lnc 유형의 피치액센트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카이제곱	76.308*
자유도	2
유의도	.000*

*p<.05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Lnc 화제 유형의 억양 형태들은 Lp 화제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5에서 몹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p=0.000^*$). 즉, Lnc 화제 유형의 세 피치액센트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가운데 H* 피치액센트가 Lnc 화제 유형의 주된 억양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은 H*로 구현되고 있는 Lnc 화제의 예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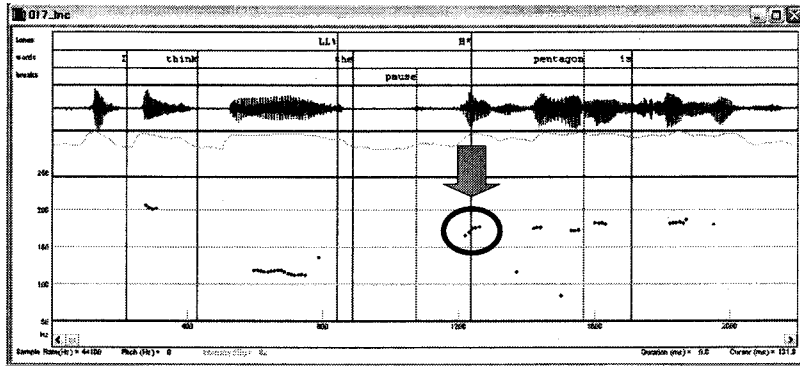


그림 3. Lnc 화제 유형에서 H*로 구현된 경우(Nov. 28, 2004)

Mr. Russert: Is the Pentagon reluctant to give up the control they now have?

Mr. Hamilton: I think the Pentagon is understandably reluctant.

Lncd 유형 역시 Lnc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피치액센트로 구현되었다. 다음 <표 7>은 Lncd 유형의 다양한 억양 양상과 이에 대한 유의미 여부 및 억양 선호도를 보여주는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 Lncd 유형의 피치액센트 구현 비율 및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도
H* 유형	2	3	6	11	61.11	14.889*	3	.002*
L+H* 유형	1	1	3	5	27.78			
L*+H	0	0	1	1	5.56			
L* L-H%	1	0	0	1	5.56			
합계	4	4	10	18	100			

* $p < .05$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ncd 유형은 Lnc 유형과 마찬가지로 H*로 주로 발화되고 있고 (61.11%), 억양형태들 간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다($p=.002^*$). 이는 다른 피치액센트에 비해 H* 피치액센트가 Lncd 화제 유형에서 주로 구현되는 억양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Lncd의 경우를 Lnc의 경우처럼 L*+H와 L*(L-H%) 억양을 기타유형으로 분류하여 통합 분석하면 다음 <표 8>과 같은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를 얻게 된다.

표 8. Lncd 억양 유형을 세 개로 조정한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도
H* 유형	2	3	6	11	61.11	7.000*	2	.030*
L+H* 유형	1	1	3	5	27.78			
기타 유형	1	0	1	2	11.11			
합계	4	4	10	18	100			

* $p < .05$

<표 8>의 결과를 보면, 피치액센트를 네 개로 분류했을 때와 Lnc 화제 유형처럼 세 개로 분류했을 때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p = .000^*$, $p = .030^*$). 그러나 Lncd의 경우 억양유형을 세 개로 분석했을 때 유의도가 좀더 약해짐을 볼 수 있다($p = .030^*$). 다음 <그림 4>는 Lncd 화제 유형이 L+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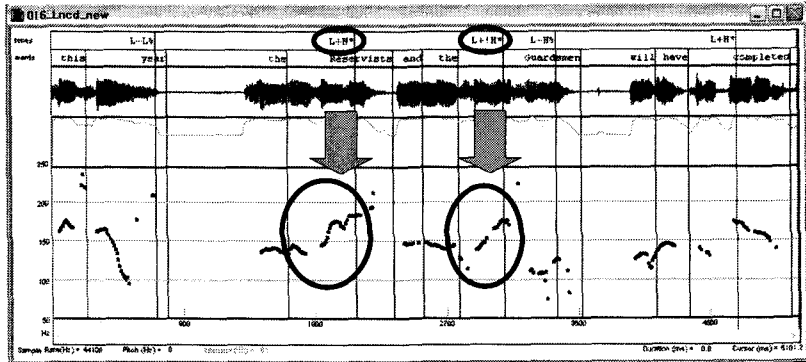


그림 4. Lncd 화제 유형에서 L+H*로 구현되는 경우(Jan. 9, 2005)

Mr. Russert: .. and at the end of this year, *the Reservists and the Guardsmen* will have completed...

다음 <그림 5>는 Lnc의 피치액센트 사용 빈도율을, <그림 6>은 Lncd의 피치액센트 사용 빈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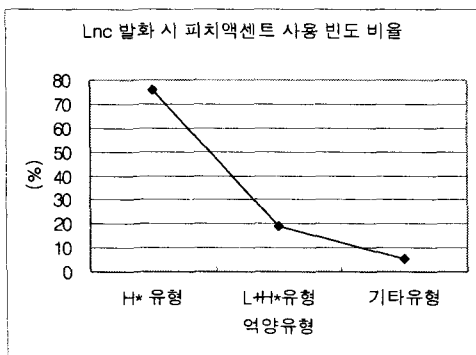


그림 5. Lnc 유형의 피치액센트 사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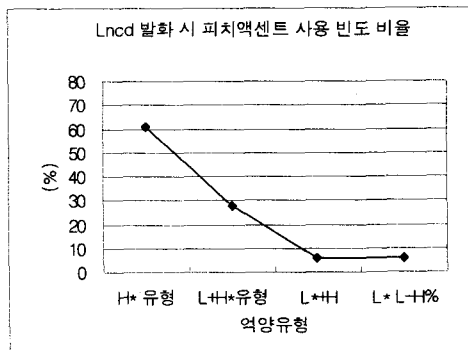


그림 6. Lncd 유형의 피치액센트 사용 빈도

3.2.2 대조화제의 억양 분석 결과

대조화제로서 Lci와 Lcc 유형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음조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다음 <표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9. 대조화제 유형의 억양 양상

화제 유형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Lci	피치액센트	9	22	10	41	73.21
	음조	8	1	6	15	26.79
	합계	17	23	16	56	100
Lcc	피치액센트	16	6	23	45	86.54
	음조	3	2	2	7	13.46
	합계	19	8	25	52	100

<표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Lci와 Lcc 화제는 모두 피치액센트로 발화되는 비율(73.21%, 86.54%)이 음조로 발화되는 비율(26.79%, 13.4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조화제 역시 비대조화제의 Lnc, Lncd 유형과 마찬가지로 음조가 아닌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Lci와 Lcc 유형 모두 다양한 피치액센트 유형으로 나타났다. Lnc, Lncd 유형에서 본 것과 같이 대조화제 역시 H* 유형과 L+H*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조화제로 분류된 두 유형의 화제가 둘 중 어떠한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려는 경향이 있느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음 <표 10>은 Lci 유형의 피치액센트 유형 빈도율과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 Lci 유형의 피치액센트 양상 및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억양유형	Data 1	Data 2	Data 3	합계	비율(%)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도
H* 유형	12	18	11	41	73.21	44.607*	2	.000*
L+H*유형	5	4	5	14	25.00			
기타 유형	0	1	0	1	1.79			

* $p < .05$

<표 10>에서 Lci 화제에 대한 억양은 H*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73.21%). 카이제곱 검정 결과 억양 유형 간에도 몹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 이는 Lci 유형의 억양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Lci 화제 발화시 H*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Lcc의 경우는 다음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피치액센트 구현에 Lci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11. Lcc 유형의 피치액센트 양상 및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 결과

억양유형	Data1	Data2	Data3	합계	비율(%)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도
H* 유형	10	4	11	25	48.08	20.346*	2	.000*
L+H*유형	8	4	13	25	48.08			
기타 유형	1	0	1	2	3.85			

*p<.05

<표 11>에 나타난 Lcc 화제 유형은 H*와 L+H*가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48.08%, 48.08%).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값은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통계값의 유의성은 기타 유형의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H* 및 L+H* 유형의 값과 기타 유형의 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결국 Lcc 화제 유형에서 H*와 L+H* 두 형태의 피치액센트가 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대조성을 갖는 경우 L+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상충되는 예라 하겠다.

다음 <그림 7>은 Lci 유형의 화제가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림 8>은 Lcc 유형의 화제가 L+H*로 발화되는 경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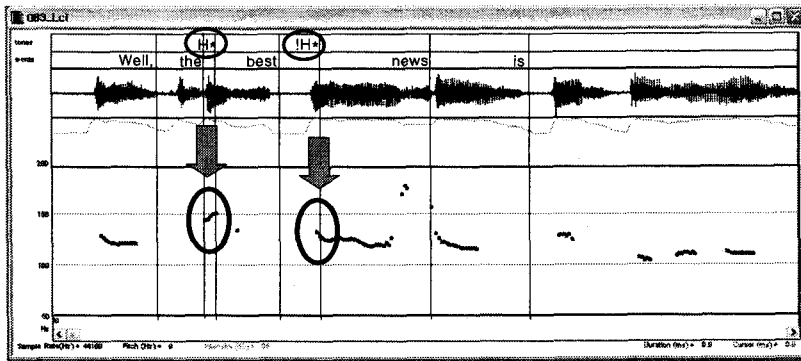


그림 7. Lci 화제 유형에서 H*로 구현되는 경우(Jan. 2, 2005)
Mr. Broder: Well, the best news is baseball in Washingt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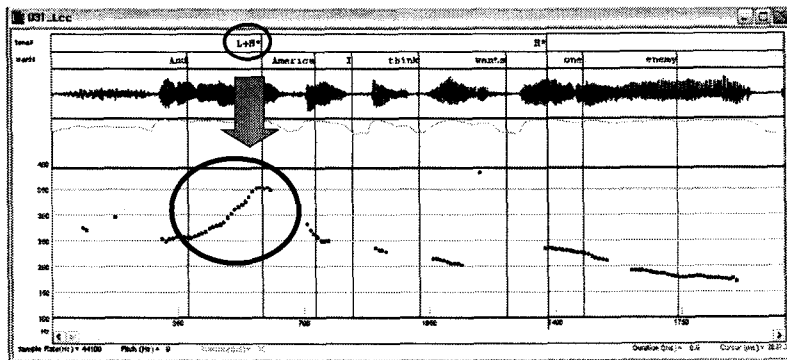


그림 8. Lcc 화제 유형에서 L+H*로 구현되는 경우(Jan. 9, 2005)
Ms. Katty Kay: ... and America, I think, wants one enemy and not two in Iraq...

다음 <그림 9>와 <그림 10>은 대조적 화제의 두 분류가 갖는 피치액센트 선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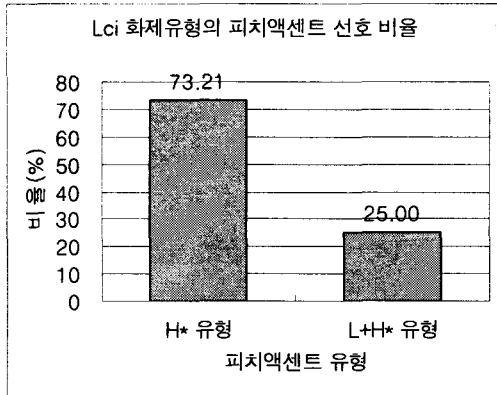


그림 9. Lci 유형의 피치액센트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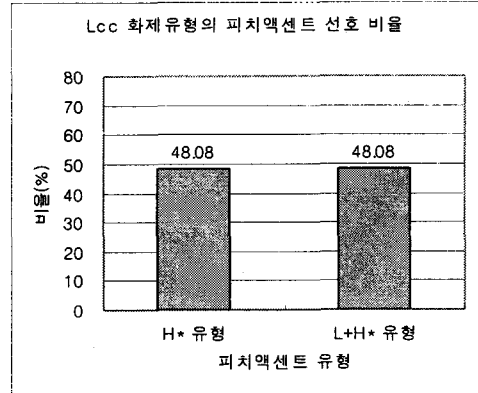


그림 10. Lcc 유형의 피치액센트 선호도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 정보구조에서 화제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분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억양으로 구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화제를 비대조적 화제와 대조적 화제 둘로 나누고 각각의 억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대조적인 성향을 갖는 화제의 유형은 앞서 언급한 바를 대명사로 도입하는 Lp 화제의 경우 대체적으로 강세 없이 발화되는 경향이 있다(80% 이상). 그러나 명사구의 형태로 도입하는 Lnc, Lncd 화제의 경우 두 유형 모두 H*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H*로 발화하려는 비율이 전체 Lnc 유형의 화제 가운데 75.8%를 차지하면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는 반면, Lncd 유형의 화제에서는 H*의 비율이 61% 정도이면서 L+H*와 기타 유형과 비교했을 때 Lnc 유형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약한 유의도를 가짐을 보였다. 이는 Lncd 유형의 화제에서는 H*뿐 아니라 L+H*나 L*, 또는 L+H*가 전체의 39% 정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는 억양과 의미와의 연구에서 L(*) 액센트는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청자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 정보를 상기시키거나 재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고 보았다. Lnc가 앞서 언급된 것을 동일한 명사구를 이용해서 받는 반면, Lncd는 앞서 언급되었으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명사 형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청자로 하여금 지금 발화되고 있는 명사가 앞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보다 강조해서 말하려는 의도로 L(*) 액센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조적 화제 유형에서 정보제공을 위한 Lci 화제 유형의 경우는 Lnc, Lncd 화제 유형에서처럼 주로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Lcc 화제의 경우는 H* 피치액센트가 주로 구현되는 피치액센트 유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H*와 L+H* 피치액센트가 Lcc 유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억양 형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의 논의에 의

하면, L+H*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피치액센트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 토론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L+H* 피치액센트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액센트라고 결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억양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Lcc 화제에 주로 사용되는 액센트 유형이 L*, L*+H, H+!H*와 같은 다른 피치액센트 유형이 아니라 H*와 L+H*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논의와 유사하게 'L+H*는 대조의 의미에 그나마 많이 사용되는 피치액센트이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대조성에 관한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뿐 아니라 정보구조에서의 초점을 분석할 경우에도 대조초점으로서 분석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화제와 초점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억양 분석을 통해 보다 보편적인 대조의 의미를 갖는 억양 유형을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Lci와 Lcc 화제 유형은 모두 화용적인 맥락에서 가능한 후보집합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Lci에서 H*로 구현되는 경향이 Lcc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H*:Lci 73% > Lcc 48%)?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의 논의에 의하면, H* 피치액센트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미공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Lcc 화제가 대조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데 반해, Lci 화제는 화자가 대조집합의 한 구성원을 선택하여 청자에게 정보(대조집합의 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화자가 발화하는 바로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Lcc 유형보다 새로운 정보의 전달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H*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영어 화제 억양이 피치액센트로 구현되는지, 아니면 피치액센트와 경계성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조로 구현되는지, 또는 경계성조만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으로 화제가 피치액센트로 구현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구조와 억양과의 관계 중 긍정 평서문에 한해서 화제 명사구의 억양을 다루었다. 추후에는 보다 확대되고 보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긍정 평서문뿐 아니라 의문문이나 부정문 등 다른 양상의 문장 역시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자연스런 발화 자료를 이용하여 화제의 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억양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그 담화 상황을 '토론'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담화상황 즉, 전화 대화라든가 친한 친구 간의 대화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양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에는 담화상황에 따른 억양유형도 함께 연구하여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얻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99. "억양 음운론의 소개: 영어 억양을 중심으로." *음성과학*. 제6권. 한국음성과학회. 119-143.
- 김화영. 2005. *영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에 대한 억양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우. 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 이용재. 1996. *영어음성학*.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용재. 2004. *영어의 발음*. 서울: 한국문화사.

- Beckman, M. E. & Elam, G. A. 1997. "Guidelines for ToBI labelling. Version 3.0."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 Bolinger, D. L. 1986. *Intonation and Its Parts; Melody in Spoken English*.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üring, D. 2002. "On D-Trees, Beans, and B-Accents." *Linguistics & Philosophy* 26:5. 511-545.
- Chafe, W. L.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N. Li, (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25-55.
- Cutler, A. & Fodor, J. A. 1979. "Semantic focus and sentence comprehension." *Cognition* 7, 35-41.
- Gundel, J. K.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Michael Hammond, Edith Moravcsik, & Jessica R. Wirth (eds.),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209-239.
- Gundel, J. K.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 Bosch & R. van der Sandt, (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3-305.
- Gundel, J. K & Fretheim, T. 2004. "Topic and Focus." *The Handbook of Pragmatic Theory*. Blackwell Publishing Ltd. 175-196.
- Halliday, M. A. K. 1967a.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 Halliday, M. A. K. 1967b.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John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Books Ltd. 140-165.
- Hedberg, N. & Sosa, J. M. 2001. "The Prosodic Structure of Topic and Focus in Spontaneous English Dialogue." *Topic and Focus: A Workshop on Intonation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Institute of Linguistics.
- Hedberg, N. & Sosa, J. M. 2002. "The Prosody of Questions in Natural Discourse."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2*(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eech Prosody). Aix-en-Provence, France, 375-378.
- Hedberg, N., Sosa, J. M., & Fadden, L. 2004. "Meanings and Configurations of Questions in English."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4*, Nara, Japan.
- Hedberg, N., Sosa, J. M., & Fadden, L. 2006. "Tonal Constituents and Meanings of Yes-No Questions in American English." *Proceedings of Speech Prosody 2006*. Dresden, Germany.
- Hedberg, N. 2002a. "The Prosody of Contrastive Topic and Focus in Spoken English."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Information Structure in Context, University of Stuttgart, Germany, Nov. 15-16, 2002.
- Hedberg, N. 2002b. "Topic-Focus Controversies." presented at the symposium "Informationstruktur - kontrastivt." Lund, Sweden, Dec. 6-8. 2002.
- Hockett, C.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McMillan.
- Jackendoff, R. S.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Lambrecht, K. & Michaelis, L. A. 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 477-544.
- Lee, C. 2002. "Contrastive Topic and Proposition Structure." In Di Sciullo, Anne-Marie. (ed.), *Asymmetry in Grammar*. John Benjamins.

- Pierrehumbert, J.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MIT.
- Pierrehumbert, J. & Hirschberg, J.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 R. Cohen, J. & M. E. Pollack (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 Steedman, M. 1991. "Structure and Intonation." *Language* 67. 260-296.
- Steedman, M. 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31. 649-689.
- Vallduví, E.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 Garland.
- Vallduví, E. & Engdahl, E. 1996. "The linguistic realiza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Linguistics* 34. 459-519.

접수일자: 2006. 5. 4

게재결정: 2006. 5. 25

▲ 이용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9-52

E-mail: yjaelee@korea.ac.kr

▲ 김화영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본관 강사실1

Tel: 016-367-2308

E-mail: hwayoung2@hanmail.net